

21세기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환태평양권 핵심역량대학' 부산대학교

김 인 택 | 부산대 홍보지원단장

비약적 성장 55년의 전통

부산대학교는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1946년 5월 15일 전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으로서 개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창조해 왔다. 그 동안 부산대학교는 교육 기능에 있어서는 사회 각계 각층에 등문들이 진출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견으로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으며, 연구 기능에 있어서는 교수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으로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대학원, 6개 특수대학원, 그리고 12개 단과대학 아래에 14개 학부, 4개 학과군, 81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46개 연구소가 설치되어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800여명의 교수와 재학생 2만 4천여명, 직원 500여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국립종합대학교이다.

환태평양권을 선도하는 핵심역량대학

부산대학교는 환태평양권을 선도하는 핵심역량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기 위해

국가 발전의 기둥으로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수력과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선진화와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 인재의 산실,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다양한 국제적 학문 배경,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기질, 직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정신이 어우러져 한국을 대표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한 부산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SCI논문 최상위권에 오른 많은 교수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과 우수한 학생들의 진학 및 학생들의 활발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재학생의 40%가 넘는 장학금 수혜율, 계곡과 숲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캠퍼스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은 부산대학교의 자랑이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력과 연구 성과들은 지역사회에도 적극 제공하며, 산·학·연 협동과정, 평생교육원, 보육종합센터의 사회 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부산대학교가 닦아온 역량을 바탕

으로 교육연구환경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국제화가 가장 앞서는 대학, 국제적으로 활동할 자질을 갖춘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최고(最高)의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교육제도들도 대폭 개선해 경쟁력 있는 교육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지식인을 발굴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소질을 가진 특기생을 선발한다. 가상대학 운영, 영영·컴퓨터 3년간 무학점 필수 이수제도 시행, 강의평가제 강화 및 원어사용 강의 확대, 겸임교수와 외래교수·계약제교수·석좌교수 등 다양한 교수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구 진흥을 위한 각종 노력들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세계의 학문을 선도할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우수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며 주요 연구 논문 발표 및 특허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

부산대학교는 기본적인 발전 방향으로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 활동의 국제화를 통해 부산대학교를 '환태평양권의 핵심 역량 대학'으로 발전시켜 국제적으로는 선진대학, 국내적으로는 선도대학의 위치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환태평양권의 관문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과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이 국제적으로 다양함이 국제 교류를 통한 대학 발전에 아주 유리한 여건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초빙된 우수 교수진이 강의를 맡고 있어서 다양한 학문적 흐름을 접할 수 있다. 학생들도 어느 대학보다 개방적이고 진취



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다. 학내에 222개의 동아리들이 조직되어 있어 학사과정 학생 수의 48%에 해당하는 9,26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의 동아리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부산대학교는 '국제화'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와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적어도 수 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산출하며, 사회봉사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국제화를 통한 국제적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는 대학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환태평양권 우수 명문대학들과 네트워크 구축, 공동 발전 추구

부산대학교는 교육, 연구, 학생 과외 활동, 대학 행·재정 등 대학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환태평양권의 핵심 역량 대학들과 다각적으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캐나다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일본의 큐슈대학(KU), 호주의 University of Melbourne(UM), 중국의 후단대학(FU), 싱가포르

리의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뉴질랜드의 University of Otago 등의 7개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협력과 경쟁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대학과 정기 학술 행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재학생들의 외국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파견하는 것과 등·하계 방학을 이용한 우수 학생 및 우수 신입생 어학 연수 실시 등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화·정보화 교육

환태평양 영어·컴퓨터 교과과정과 국제 전문인력양성 학부과정을 운영하여 국제화·정보화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

다. 국제대학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더욱 교과과정을 풍부히 하고 최첨단 어학실습센터, 첨단 강의실, 국제원격 화상교육실, 멀티미디어 교육실 등 각종 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16대 국제화사업 전략적 추진

부산대학교는 16대 국제화사업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학생들의 국제 교류이다. 해외 7개 네트워크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2년간 유학,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부산대학교와 이들 대학이 동시에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학생 교류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생 교류와 함께

국제화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교수들의 국제 교류이다. 이는 부산대학교 교수의 10% 정도가 6개월에서 1년 간 네트워크 대학에 체류하면서 연구·교육 활동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체 교수 가운데 외국인 교수의 수를 현재 20명에서 2003년 60명, 2011년에는 115명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2001년부터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킨 것도 국제화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학사과정의 모든 학생들은 3년간 매주 2시

간씩 영어와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제화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유능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국·내외 국제 기관과 국제 부문 등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비중이 전체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도 최상위 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21세기에는 세계적으로는 정보 통신 기술의 확산에 기초한 국제화·세계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개방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구 시장의 개방이 확산되면 국내외 대학간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 조직의 개편을 비롯하여 학사 제도의 개선, 캠퍼스의 재건, 대학 행·재정의 개혁 및 대학의 정보화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호**

